

2021년 1월 3일[제 41권 1호]

TWOWINGS 1500 VISION

두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예일교회

Healthy church soaring with two wings

담임목사 **강 승 신**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56

전 화 | 032-345-8031~2

팩 스 | 032-345-8033

홈페이지 | www.ylch.org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일교회



큰날개 주일예배

전통예배

축제예배

오전 11:00

젊은예배

오후 1:30

찬양과
경배

예배로의 부름
찬양 밤이나 낮이나

노피어 찬양단
찬양 예수 예수 예수

고백과
헌신

기도 이성근 장로
성도의 교제

기도 한상의 형제
광고 및 환영

말씀과
결단

요한계시록 2장 1~5절 (신약 400)

새해를 시작하며 먼저 점검 할 일

설교 담임목사

축복과
파송

봉헌 돌아서지 않으리
축도 담임목사

봉헌 예수 나의 치료자
축도 담임목사

제자대학 졸업예배 15:00

요 13:12~17

발을 씻으시는 예수님

설교 담임목사

1월 예배위원

[다음주 기도]

축제예배 한미라 권사

젊은예배 김은숙 간사

[봉헌]

전통예배 장미경 한미라

축제예배 서동협 정오영

김미정 김순매 최현순

젊은예배 옥임석 한상의

수요기도회 19:30

가정 예배

2월 봉헌위원

[전통예배]

김영미 김현숙

[축제예배]

라종선 김영일

김영숙 강애진 이선희



오늘의 말씀

새해를 시작하며 먼저 점검할 일

[요한계시록 2장 1~5절]

첫째, 명의 되신 예수님의 ()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둘째, 진단을 받았다면 ()을 실행해야 합니다.



작은날개 목장나눔

셀 가족의 돌봄

[사도행전 9장 26-31절]

W

WELCOME

환 영

..... ICE BREAK를 해봅시다.

W

WORSHIP

경 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 이 시간을 성령님께 의뢰하며 기도합니다.

W

WORD

말 씀

.....

현시대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더 살기 좋아졌다. 하지만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은 이들이 무능감, 고립감, 허무감, 죄책감, 자살 충동등에 사로잡혀 산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 6명 가운데 1명은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인의 15.6%는 평생 한 번 이상 자살을 심각하게 고려했고, 3.3%는 자살 계획을 세웠고, 3.2%는 실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뿐만 아니라 우울증, 불안장애, 알코올 장애 등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Q

QUESTIONS

질문

1. 성경에 나타난 돌봄에 대해 살펴보자.
2. 돌봄은 축복이다.
3. 셀에서 돌봐야 할 세 영역은 무엇인가?
4. 새가족과 장결가족의 돌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5. 새가족과 장결가족을 어떻게 심방해야 하는가?

W

WITNESS

증거

이번주 행복모임의 진행현황과 베스트와의 관계맺기에 대해서로 나누어 봅시다.

W

WORK & PRAYER

기도

돌봄이 필요한 목장가족이 있는지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1) 문제를 맡기며 기도
- 2) 베스트와 행복모임을 위해 기도
- 3) 치유와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
- 4) 축복기도



간증나눔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나의 삶 (1)

- 여성-2목장 김미정 집사 -

안녕하세요 예일교회 B-2목장 김미정 집사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성도님들과 대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여 아쉽지만 온라인으로 각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모든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는 부족한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는 1남 5녀중 넷째 딸로 태어났고 마을에는 이십 가구 정도되는 한적한 시골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을 기억해 보면 좁은 집에서 한 가족이 함께 지냈고 언니 오빠들과 저는 부모님의 일손을 돕느라 이른 새벽부터 일손을 돕는 날이 많았으며 학교 마치고 와서도 바로 일손을 도와야 하는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아버지가 술을 자주 마셔서 그런 날에는 온 가족을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공포스러운 날들도 많았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가난해도 부모의 잦은 싸움에도 큰 문제 없이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숙명적인 삶을 당연하게 받아드리며 살아가다 열아홉 살에 집을 떠나 대 그룹 기업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취업하여 2년 동안 열심히 생활하다 친구의 말을 믿고 다단계 빠져 모은 재산을 다 잃게 되는 사건을 통해 언니와 함께 생활을 하

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 다니며 사사로운 모든 문제들을 점쟁이에게 의지하고 굿을 하는 일도 서슴지 않으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결되는 문제는 없었고 삶의 공허함, 허무함으로 아무리 다른 무언가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삶 이었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인정받고 열심히 살아도 항상 공허했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세상 희락에 빠져 살던 중에 지금의 남편을 소개로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의 결혼 조건에 안성맞춤인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 사주팔자 궁합 보는 것은 당연지사였고 궁합 결과는 좋지 않았었지만 제가 좋아하는 돈, 권력, 성격 모두 갖춰진 사람이었기에 저의 인생을 맡겨도 될 거라는 생각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건을 보고 결혼한 저는 시작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조건이 저를 속였다는 생각으로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꿈꾸던 결혼생활이 저만의 만족으로 채워지지 않으니 남편을 이해하기보다 미워하며 잦은 다툼이 일어났고 불행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초 1년가량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일찍 일어나 우리 예일교회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를

다니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다니시는 교회이지만 저는 정말 관심 1도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가서서 무엇을 하고 오시며 어떤 곳인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종교에 대해 신에 대해 관심도 없어 거니와 저에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지 ‘기도하러 가시는구나’가 전부였습니다. 큰 아이를 낳고도 가정의 불화는 계속 좋아지지 않았고 이혼의 고비도 몇 번 넘기며 항상 우울함으로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간혹 한번씩 저희와 함께 예배를 나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단호하게 거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어머니께서 저희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간절하셨을까 라는 마음에 죄송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우울하고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먹는 것, 입는 것, 좋다는 세상 것으로 삶의 욕구를 채워갔고 남편은 돈이 된다면 어떠한 것도 마다하지 않고 사업의 열정을 갖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사업마다 항상 시작은 좋았으나 좋은 결과 없는 실패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낙심이 찾아와도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남편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가정에까지 집 압류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실패를 하는 이유에는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지 못하고 진리에 어긋난 일에는 소득이 없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그때

마다 그 길을 막아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전전긍긍 어떻게든 해결해 보기 위해 애쓰는 반면 저는 지켜보기만 해야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설마 우리 집이? 라는 마음으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쯤 저에게 평소와 다른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까지 앉아서 일을 하는 뒷모습에서 남편의 힘들어 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무거운 짐이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은 있을 거라는 생각과 믿음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거리에서 전도하던 사람들을 혐오하고 사람들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단체 생활을 질색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 교회에 같이 가자 라는 말을 하게 된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불러 주셨습니다.

- 다음주에 계속... -



새롭게 시작하세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지난 한해 세상을 얼마나 영망을 만들어 놓았는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직도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유대인들은 밤이 깊고 흑암이 절정에 이를수록 여명이 가깝다고 믿습니다. 또 고난이 클수록 행운이 문 앞에 이르렀다고 믿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들은 역경을 이겨왔고 결코 포기하는 일이 없는 민족입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고난과 역경이 주기적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될 때마다 남다른 기대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시 19:14).

새해의 시작을 가치있게 하세요.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사람들은 쉬운 것부터 하려고 합니다. 미국에 이민한 한인들은 세탁소, 음식점, 청소 같이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나도 계속 그 일만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고생고생하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연구원이 된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신

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도 새해는 가치있게 시작하여 값진 열매를 거둬야 합니다. 만가지 어려움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와서 삶을 묶어 드리는 주일 성수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고 반드시 축복하실 수 밖에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해를 시작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값을 떨어뜨려 가치없는 인생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값을 지불하고 행복을 만들어야 합니다.

행복과 행운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happiness, lucky). 행운은 요행을 바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트럭 운전사가 사고로 뇌사 상태에 있다가 12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되어 새 차를 샀습니다. 소문을 듣고 방송국에서 섭외해서 그 상황을 재연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서 복권을 샀는데 그것이 또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행운, Lucky입니다. 그러나 이 행운의 주인공은 한 사람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허탕입니다. 요행을 바라는 삶은 건강한 삶이 아닙니다. 노력과 수고의 열매가 아니라 보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꾸고 만들어야 합니다. 노력과 땀과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기쁨과 보람과 맛이 있습니다. 행복은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에디슨은 천 여개의 발명 특허를 받은 사람입니다. 친구 아들이 첫 출근할 때 유명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일하는 동안은 시계를 보지 말라」. 일에 파묻히라는 말입니다. 현대인은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고 남의 그늘에서 행복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꿈과 기대를 가지고 힘있게 달려가야 합니다.

권위있는 갤럽에서 젊은이들의 의식구조를 조사했습니다. 1. 성공 요인이 무엇이라고 보느냐? 부모의 배경 53%, 자신의 노력 31%. 2. 법대로 살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손해난다 91%, 3. 편법으로 살면 어떻게 되냐? 더 빨리 성공한다 94%. 참으로 기가 막히고 답답한 결과입니다. 설령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남이 만들어 준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는 사냥꾼은 토끼를 보

고 쏘지 않습니다. 참고 기다리고 묵묵히 인내하다가 호랑이가 나타나면 쏘아서 잡습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집 옆에 작은 텃밭에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쪽 모퉁이를 누가 캐갔습니다. 다음 날보니 또 캐갔습니다. 과부를 팻말에 “제발 이 과부의 사정을 보아주세요”하고 써 붙였습니다. 다음날보니 고구마를 또 캐가면서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제발 이 고구마를 캐가지 않으면 안되는 사람의 사정도 이해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금주 도고기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한 기도

1. 담임목사님을 위해서

-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사명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새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2. 새가족들을 위해서

- 세이레 특별새벽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소서.
- 코로나가 하루 속히 종식되게 하시어 온 나라가 회복되고, 안정을 찾게 하소서.

3. 선교사를 위해서

- 열방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소서. 러시아로 선교사가 파송되었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주어진 사역을 순조롭게 잘 감당케 하소서.

성도를 위한 기도

1. 정하윤 자매

- 선교사의 비전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웃리치를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고, 성령충만함으로 늘 비전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길을 견도록 인도하소서.
- 일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업장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소서.
- 우리 가정이 훈련과 재훈련을 통해 불변의 로드십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2. 김은숙 간사

- 메마른 심령이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어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 청년목장과 청소년부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연합하고 비전으로 하나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금주의 감사

- 주님, 제 손에 아무 것도 남은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순종할 수 없을 때 당신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내게 새 힘을 주소서.

- 새가족이 계속해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잘 정착하여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어진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 2020년 한해도 풍성한 은혜로 돌보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 세계비전제자대학2학기 훈련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재생산사역자로 변함없이 달려가게 하소서.

- 당연했던 주일예배가 이렇게 감사하게 됨을... 주일예배로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이번주 소식

1. 오늘 공동체 예배 때는 제자대학 졸업예배가 진행됩니다. 졸업하는 훈련생들을 축하하며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2. 홈커밍데이(해피투게더)가 진행중입니다. 각 목장에서는 장결가족, 정착하지 못한 새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 두날개 세이레 새벽기도회가 "눈을 들어 밝히 보라!"는 주제로 진행중입니다. 새벽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새벽예배는 금요기도회로 대신합니다.)
4. 다음주 공동체 예배 (3시)는 교육기관 졸업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20년 주보모음집을 발행합니다. 한 해동안 모아두신 주보를 가져오시면 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다음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다음주 공동체 예배 후에 신년 제직회로 모입니다. 제직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 봉사

[청소]

본당 : 여성C-2동산(강미령 목사)

준2층,계단 : 여성D-1목장(양나운 목사)

2층 : 여성B-1목장(김영숙 목사)

3층 : 여성A-5목장(김화심 목사)

비전홀, 멀티룸, 화장실 : 청년공동체

새가족 섬김이

박숙이 성도 (섬김이 : 이미정 집사)

박혜숙 성도 (섬김이 : 김미정 집사)

송철영 성도 (섬김이 : 박원찬 집사)

김영옥 성도 (섬김이 : 김향화 성도)

김학병 성도 (섬김이 : 김영일 집사)

김우신 형제 (섬김이 : 이광수 간사)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세계비전을 품고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한 날개는 전체가 모여 감동적인 축제로 드리는 대그룹의 축제예배이며 다른 한 날개는 소그룹으로 모여 삶을 나누고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목장모임입니다. 이 땅에 아들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는 동안 그들을 찾아 쉬지 않고 섬기고 복음전하며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 앞장서며 모든 것을 불태우는 교회입니다.

예배시간

전통예배	주일 오전 9:00
축제예배	주일 오전 11:00
젊은예배	주일 오후 1:30
공동체예배	주일 오후 3:00
수요기도회	수요일 저녁 7:3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9:30
유아부	주일 오전 11:00
유초등부	주일 오전 9:00
청소년부	주일 오전 9:00
작은날개모임	목장별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강승신	장로	이성근 이승길
전도사	장효진		
원로목사	강경원	원로장로	최기준

온라인에서 만나는 방법

스마트폰 QR코드 어플을 사용하세요.

홈페이지 www.ylch.org

모바일홈 m.ylch.org

페이스북 Yeil0691Church

KT올레TV CH 888, 예일교회 검색

온라인 봉헌 농협 351-0446-9239-73 (예일교회)



마을버스
51번, 51-2번(가톨릭대 입구 하차)

시내버스
5번, 12번, 20번, 52번 (가톨릭대 입구 하차)
75번(역곡역 남부 하차)

시외버스
83번, 88번(괴안동입구, 성심고가 하차)